



한국/부여군 RHI, Ryong Woo 군수

제4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이 더욱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공통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지혜를 모은 것은 의의가 있었다. 지방 자치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어>에 ‘삼인행 필 유아사’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실로 그렇다고 느꼈다. 동아시아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각 지방정부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평화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필리핀/발레르시 Nelianto Carrasco BIHASA 시장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한 땅 나라를 찾아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에 참가했다. 회합을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다. 또 다른 시읍과도 디스커션을 통해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일본 정부, 일본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정성과 규율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향후도 회합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발레르시에 오시면 큰 환영으로 맞이하겠다.



베트남/푸토성 CHU Ngoc Anh 지사

이번이 2회째 참가이다. 이번에는 회합 참가뿐만 아니라 나라현과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을 비롯해 각 참가자의 발표는 매우 참고가 되었다. 참가한 푸토성 멤버 전원이 깊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간다. 향후 정책에 대한 응용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싶다. 더 많은 동아시아지방정부가 참가해 회합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향후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



일본/다가조시 기쿠치 겐지로 시장

3년 연속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많은 수확을 얻었다. 다가조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으나, 작년 말에 ‘감재(減災)도시선언’을 하는 등 착실하게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흥 작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베트남 푸토성으로부터 인재 파견의 제의를 받았다. 베트남에는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도 있다. 그런 구체적인 관계를 이 회합을 통해 넓혀 가면 모임이 갖는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미얀마/양곤지역정부 Tin Win 대신

회합에 참가할 기회를 얻어 고맙게 생각한다. 현재 미얀마는 의식주가 해결되어 시장 경제로 이행·발전하는 단계이다. 민주화, 정치 개혁,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에 있어, 오늘 회합을 통해 지역 진흥에는 내발적인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의의가 있었다. 본 회합의 성과를 국가 발전에 살려 나가고 싶다. 다음에도 꼭 회합에 참가하고 싶다.



2013년도 제4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담에서는 제2회 회합부터 실시하여 참가 회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테마별 그룹 토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지방정부에 공통된 과제로서 나라현(사무국)에서는 회원 지방정부의 설문 조사를 거쳐 작년에도 다루어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과 새롭게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등 2가지 테마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그룹 토의를 실시했다.

회원 지방정부는 미리 테마를 선택한 후 주제별 논의에 참가했다.

어제(20일) 실시한 ‘상급 실무자 레벨’ 토의에서는 사전에 제출받은 리저널 리포트를 중심으로 강사의 평가를 섞어가며 참가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오늘(21일) 회합에서는 먼저 전 아세안사무총장,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인 수린 핏수완 씨가 ‘아시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했다.

수린 핏수완 씨로부터는 ‘동아시아지방정부회담의 평가는 지역, 커뮤니티, 일반 대중 차원에서 운영되고, 모두 하나가 되어 인류의 안전, 안심, 복지, 번영에 공헌하는 힘을 기르는 것’, ‘회담에 참가한 여러분은 지방정부라는 입장에 머무르지 말기 바란다. 여러분은 큰 엔진의 스크루가 아니다. 각국 리더의 비전은 지방정부의 힘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지방정부 자신이 더 좋은 세계를 실현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이 정부 회합이 향후도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나 다양한 조직이 참가해 교육, 계몽, 교류를 거듭해 나가는 것이 내 희망이다.’ 등 힘찬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에 각 테마 3명의 강사로부터 어제 열린 상급 실무자 레벨 그룹 토의의 개요 보고가 있었다.

계속해서 기조 강연과 실무자 레벨 논의를 토대로 ‘수장 레벨’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각 행정 과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했다.

이하에 주제별 논의 결과(개요)를 다음의 2가지 시책으로 정리하여 보고한다.

- I 지방정부로서의 구체적 시책
- II 향후 더 나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책

이 의장 보고는 의장인 나라현지사와 사무국인 나라현이 작성하였으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룹 토의 강사 여러분의 정확한 조언과 지도를 받았다. 많은 협력과 지원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테마 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I 각 지방정부의 대응 사례

1. 고령자 지원

(1) 지역 포괄 케어

- ‘올(all) 교토 체제’를 통한 지역포괄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토 지역포괄 케어 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시읍면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의료·개호·복지의 연계 시책을 추진. 의료·개호·복지의 연계 프로젝트, 교토 지역포괄 케어 종합교부금사업 등을 실시(교토부)

(2) 개호 예방·삶의 보람 만들기

- 개호 예방 대책으로 보건소에 혈압을 등록하면 약값을 보조.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와 목욕, 이야기 상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고령자 대책으로 노래와 춤, 레크리에이션 등 치매 예방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경주시)
-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건강 진단을 실시. 고령자가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에서 서로 의지하고 돕는 시책을 전개.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등을 장려하고 고령자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고령대학을 설치(산동성)
- 지역에서 개호 예방·생활 지원을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단체를 육성하는 등 개호 예방과 삶의 보람 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다자이후시)

(3) 건강 증진

- 평균 수명·건강 수명의 연장과 그 차이 줄이기를 목표로 하여 ‘건강 증진·의료 충실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 현민 운동과 의료 체제 충실의 양면에서 시책을 추진(나가노현)
- 건강 수명 전국 1위를 향한 시책을 종합적·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라 건강장수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보건·의료·복지·개호 등 분야별 관련 계획과의 효과적 연동을 추진(나라현)

2. 저출산 대책

(1) 경제적 지원

- 불임치료비 조성사업(자녀지원사업), 의료비 조성(2012년도부터 입원 대상을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텐리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 출산 축하 등 출산·양육을 지원(경주시)

(2) 육아 환경 충실

-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 건국 선언 이후, 육아 환경 정비를 위해 시읍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돗토리현)
- 원아가 감소한 유치원과 같은 지역에 있는 보육원을 일체화하는 정비 계획을 추진. 나이가 다른 많은 아이들이 급식과 운동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가시하라시)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전라남도 운동본부’를 운영(전라남도)
- 아이들을 위해 보다 질 높은 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설비 관리 관점에서 시내 8개 보육원과 유치원을 통폐합하여 3개 유아원화를 추진(고세시)

(3) 결혼 지원

- 경기도의 출산율 1.35를 토대로 중고생, 대학생, 군인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인구 교육’을 실시(경기도)
- 혼인 이벤트 개최나 이벤트 정보 메일 제공 등 ‘돗토리 결혼활동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돗토리현)

II 향후 저출산 · 고령화 시책 추진에 대해

1. ‘지탱하는 측’ ‘지탱받는 측’의 이분법에서 탈피

고령화에 대응한 지역 만들기, 육아 지원, 생활 곤궁자 지원을 조합 · 발전시켜 전원 참가형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서로 돕는 구조’를 구축한다. 특히 취업을 포함한 고령자의 사회 참여 증가를 통한 ‘지탱받는 측’에서 ‘지탱하는 측’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이 될 것이다.

2. 건강 증진 · 개호 예방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지원 추진

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의료 · 개호 급부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사회보장비 억제에 관점에서도 개호의 필요 없이 건강하고 자립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건강 수명 연장’을 고령자 지원의 핵심으로 정한다.

3. 지방정부의 향후 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

북유럽 등의 시책을 모델로 하여 현금 급부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취업 환경 정비와 육아 중의 생활 수준 저하 방지 지원 등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시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테마 2-1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강사: 구스미 도키오)

I 각 지방정부의 대응 사례

1. 지역 경제의 진흥

(1) 계기 만들기

- 관광이 부진했던 미쓰케시에서도 미쓰케 잉글리시 가든, 요정 런치(A급 구르메), 니트 공장 견학과 공장 아울렛 쇼핑 등을 조합한 새로운 관광 상품이 개발되었다.(미쓰케시)
- 지역과 관계 깊은 한방을 테마로 새로운 산업 부흥이 시작됐다.(나라현)
- 아스카무라만의 관광 메뉴로 발굴한 토기 복원 체험 등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아스카 뉴 투어리즘, 전 지역 체험형 관광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아스카무라)
- JETRO 야마나시 유치를 통한 해외 전개 기운의 고조(야마나시현)
- 과소 취락을 재생하는 가운데 풍요로운 자연과 전국 굴지의 브로드 밴드 환경이 공존하는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 빈집을 기업의 새틀라이트 오피스로 전개(도쿠시마현)
- 세계유산에 등재된 혼왕의 무덤을 활용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한층 도모한다.(푸토성)
- 독일 옥토버페스트를 시찰하고 지역의 강점인 ‘일본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술 이벤트를 개최. 10년 전에는 무모한 얘기로 여겨졌던 도전이 ‘니가타 술의 진(陣)’으로 실현되어, 지금은 많은 해외 바이어가 방문하는 등 큰 비즈니스의 장으로 인지되고 있다. 옛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니가타현)
- 재해는 막을 수 없으나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살려 채소 등을 가루로 만든 재해 비축품을 개발하고 LED 조명을 활용하여 양상추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다.(다가조시)

(2) 입지 촉진

- 야마나시대학의 연료전지 연구 지원과 그 성과를 활용한 관련 산업 진흥. 한 교수의 힘이 산학 클러스터로 확대된 성공 사례(야마나시현)
- 수도권 규제 강화로 기업의 지방 분산이 진행되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 기업이 돌아가지 않도록 학교 주변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등 지방의 매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서산시)
- 현과 시읍면의 긴밀한 연계로 기업 유치에 임해 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가 주역으로 현은 지원을 담당(시마네현)
- 세계적 자동차 관련 기업인 현대 위아를 유치하고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독일 린데사, 배터리 제조 회사인 컨티넨탈사와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서산시)

2. 고용 확보

(1) 인재 확보

- 여성 번역가 육성은 나라현이 역사적 문화 도시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 여성 고용의 예이다.(나라현)
- 실천형 인턴십 사업(6주 정도의 인턴십)을 통해 학생이 단순한 직장 체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전력으로서 프로젝트에 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기후현)
- 청년들이 살기 원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나라현의회)
-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공 육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푸토성)

(2) 기회 확보

- 나라현, 시마네현, 아스카무라가 공유하는 역사적 지역 자원인 ‘관광’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관광을 여성과 고령자 고용의 장, 활약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 도쿄로부터 18사(40명 고용)의 새틀라이트 오피스가 개설됐다. ‘일자리가 없다’고 여겨져 온 시골이 ‘청년들의 일자리’로 변모하고 있다.(도쿠시마현)

II 향후 지역 경제 진흥과 고용 방식

1. 끊임없는 도전

- 새로운 도전 없이는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민에게 호소하고 합의를 얻으면서 허용되는 범위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 지역이 매력을 알리고 지역과 일체가 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수도에 주거’에서 ‘지방에 주거’로 바뀌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 IT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틀라이트 오피스가 각지에서 개설되고 있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지방에서 비즈니스를 발신하고 있는 현실을 지방정부는 큰 움직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 이 시대에 고용 천명 규모의 산업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에 맞는 지속성 있는 산업을 중요 시점으로 한 ‘장치’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
- 고용에는 미스 매치라는 과제가 있다. 구직 정보 발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 만들기의 담당 인재로서 고령자를 고려할 수 있다. 건강 장수 사회로 이어져 지역의 건강과 의료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의식 개혁

- 공무원의 의식과 행정 서비스 체계의 혁신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서 서산시가 소개한 5S, 5Pum 운동과 같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얻기 쉽도록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을 바꾸는 것. 그를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 직원의 의식 변화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 재원과 인력이 한정된 행정으로서는, 기존 지역 자원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세계화 대응

- 대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도 세계화 속에서 갑작스러운 철수 등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 대응 방법을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에 대해 자국이나 지역 내에서만 성장하도록 바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부유층을 위한 상품 제조 공장은 일본 내에 남긴다. 중산층의 경우 머지않아 해외로 진출하고 빈곤층의 경우는 기술 이전을 인식해 두어야 한다.

테마2-2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강사: 모타니 고스케)

I 각 지방정부의 대응 사례

1.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내 기업 진흥

(1)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창출

- 야마가타대학과 현내 기업이 첨단 기술을 가진 유기전자공학 분야와 쓰루오카에 입지한 게이오기주쿠대학 연구소가 가진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분야의 산학 제휴에 힘쓰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기 EL 조명 패널이 제품화 단계에 이르는 등 대학과 지역의 제휴로 내발형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야마가타현)
- ‘회소당’ ‘올리브’ ‘K-MIX(가가와 원격의료 네트워크)’ 등 지역의 자원과 기술을 살린 새로운 성장 산업의 육성과 집적에 임하고 있다.(가가와현)
- 기존 산업 집적과 대학 제휴를 살려, 동부는 의료 관련 산업, 중부는 음식·약, 서부는 빛·전자 산업 등 3개 클러스터를 전개(시즈오카현)

(2) 지산외상(地産外商) 추진

- ‘지산외상이 진행되어 지역에서 청년들이 긍지와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가공 공정을 고치현 내에서 완결시키고 활력 있는 현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이 직접 1차 산업과 가공업자의 매칭과 어드바이저 배치, 수도권 판매 강화 등을 실시(고치현)
- 풍부한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과실에 특화하고 소비자와도 가까워 JA(농협)보다 각 기업들이 가공품 판매에 힘써 왔다.(와카야마현)
- 양질의 재료와 우량 식품 기업의 집적을 활용한 식품 관련 산업 진흥을 도모한다. 거점 시설 ‘에그리 파크’의 가공과 마케팅 등 기술 지원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상공 제휴, 브랜드화, 정보발신 등(니가타시)

(3) 창업가 육성

- 창업 촉진을 위해 학생과 창업 지망생들이 기업 경영자와 교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카페’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하고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인재 발굴에 힘쓰고 있다.(나라시)
- 청년 창업 사업, 시니어 창업 지원에서 출발해 중소 기업 레벨로 정착하기까지 창업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지적 재산을 가진 기업 등에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충청남도)

2. 관광 산업 진흥

(1) 관광 자원 정비, 관광객 유치 등

- 관광을 축으로 한 산업 진흥이 과제. 전통적 거리의 보존과 ‘나라마치 가옥 뱅크’를 설치하고 빈집을 관광 자원으로 재생. 나라등화회(燈花會) 등 이벤트와 전통 예능을 감상하고 공예를 체험하는 ‘나라마치 나이트 컬처’ 등의 개최에 임한다.(나라시)
- 아트를 통해 지역 자원을 세계에 발신. 세토나이카이의 섬들을 무대로 한 현대 아트 축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3’을 개최하여 107만명의 방문객과 섬으로의 이주 등 관광 산업을 비롯해 폭넓은 경제 효과가 파급되고 있다.(가가와현)
- 관광 중에서도 에코 투어리즘에 힘쓰고 있다. 삼림 재생과 등산로 정비 등 인프라 정비, 등산 가이드와 다이빙 가이드 등의 인재 육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면세와 각종 법 정비를 통해 금융 기관과 쇼핑물 유치에 성공, 고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발레르시)
-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금어 조치를 취했다. 쓰레기 처리가 과제이나 매립은 하고 있지 않다. 방재 대책도 과제이다.(발레르시)

3. 지역 구조 변화 · 발전과 지역 경제 진흥

(1)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추진

-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으나, 원래 다른 지역 출신자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등 지역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생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의료, 학교 시설 등을 정비하여 거주도 촉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했다.(충청남도)

(2) ‘내륙 프런티어’를 개척

- 신토메이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쓰나미 재해에 취약한 임해부와 내륙 · 돈대부에 산업 입지와 경관, 개성을 갖춘 지역 건설을 통해 임해부와 연계한 지역 진흥에 힘쓰고 있다.(시즈오카현)

(3) 도로 정책 추진

- 도로 정비 관련 조례에 근거한 정비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오사카 간 도로 · 철도의 정비로 발전해 온 지역 구조를 바꾸고, 현외 취업률이 높고 현외 소비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나라현)

4. 기타

(1)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인재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 먼저 취직하여 기술을 익히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고졸 스타 인재 10만명 육성 프로젝트’ 등 독자적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다.(경상북도)

(2) 토지 개발 추진 과제

-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하여 돈대부로 이전할 필요가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다.(와카야마현, 고치현)
- 농지 전용(転用) 절차와 강력한 문화재 관련 규제 등의 과제도 있다.(시즈오카현, 이카루가초, 충청남도)

(3) 교육 기관과 산업 진흥

- 지역 산업과 직결된 대학이 적어 대학과의 연계가 과제. 특히 이공계 대학이 없어 우수 인재가 현외 대학에 진학하면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다.(나라현)
- 대학은 있으나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이 많아 취직처는 수도권이 되어 버린다.(충청남도)

II 향후 대책

1. 총괄

- 일본 · 중국 · 한국의 공통 과제는 현역 세대의 감소와 고령자 절대 수의 급증이다.
- 내수는 결국 현역 세대 수 · 취업자 수와 연동하므로 지역의 소비와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 (1)저출산을 막고 청년층을 늘리는 것, 높은 임금의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것
 - (2)고령자가 되도록 오래 일하는 것, 고령자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
 - (3)전업주부를 비롯해 여성 취업자를 늘리는 것
-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에서 경제가 순환하는 비율을 높이고 지역 고용을 늘리는 것도 각 지역의 공통 과제이다.
- 예전의 지역 간 발전 격차, 한 · 일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고 같은 문제가 각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독창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